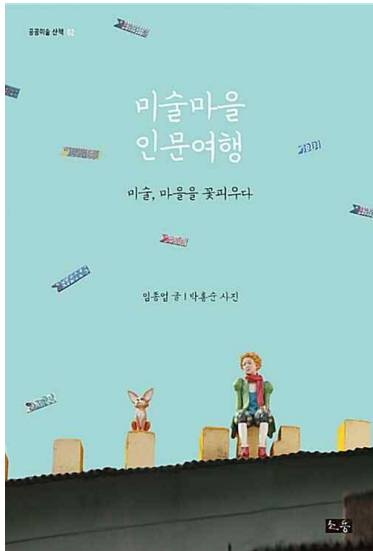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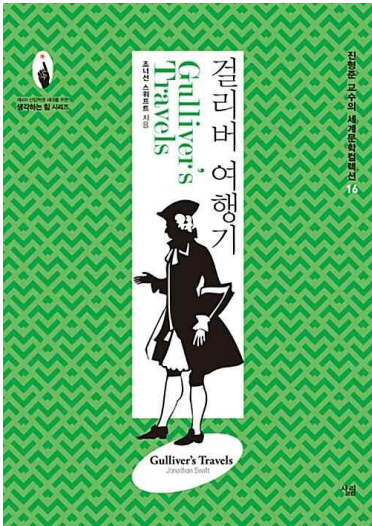
거기서 죽어도 좋았다

세계여행을 통해 ‘내면의 나’를 마주하고 지나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자기 성찰서인 이 책은 세계 곳곳에서 마주한 거대한 자연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만들며, 지나온 자신의 삶에서 진정 얻은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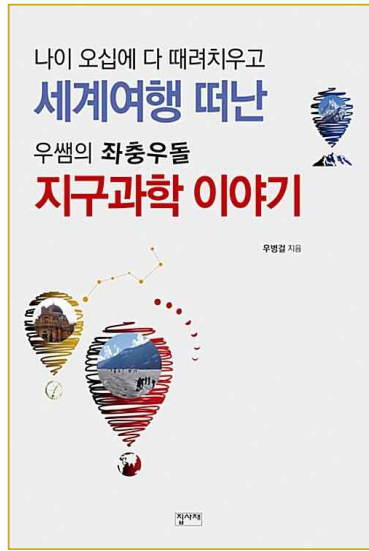
미술마을 인문여행

미술마을 열 곳을 느릿한 품으로 여행하며 쓴 글이다. 따스한 인문학적 글쓰기에 낯선 미술과 마을이 어떻게 조우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이 덧붙여졌다. 공존의 의미를 새기는 새로운 여행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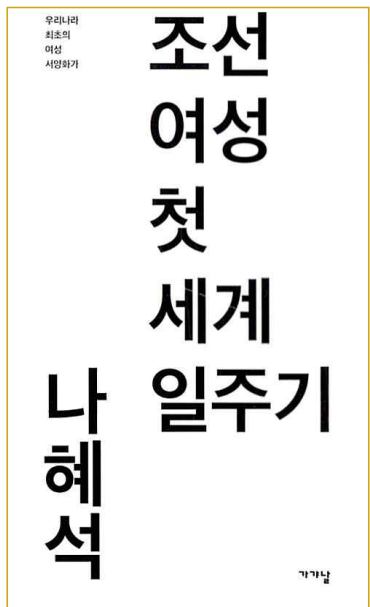
걸리버 여행기

모험소설이자 풍자소설의 최고봉 『걸리버 여행기』는 작은 사람들이 사는 소인국 릴리퍼트, 큰 사람들이 사는 거인국 브롭딩낙, 하늘을 나는 섬 라푸타, 말들이 인간을 지배하는 후이념의 나라 등을 여행하면서 겪은 모험담을 그린 소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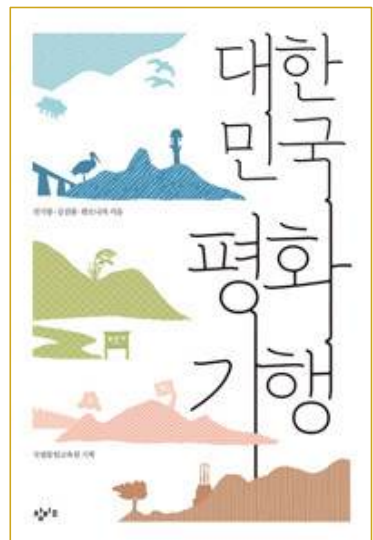
세계여행~지구과학 이야기

세계 곳곳의 독특한 풍경과 그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들을 지질학 전공자답게 해박한 지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지구별의 모습을 좀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조선 여성 첫 세계 일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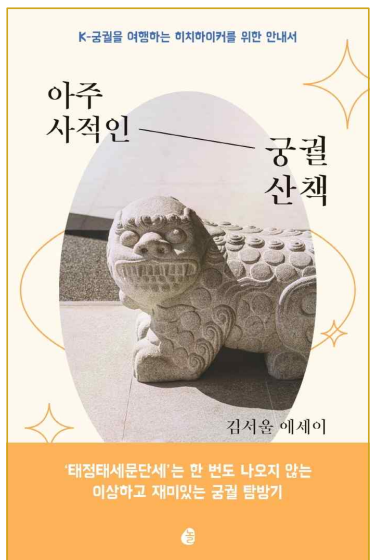
나혜석이 남긴 모든 기행문을 집대성해 여행 순서를 따라 구성한 책이다. 나혜석의 여행기는 근대적 개인으로 탈각해 가는 신여성들의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록이다.



대한민국 평화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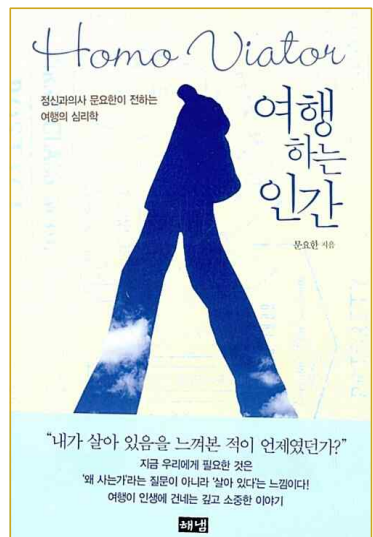
저자들의 발걸음과 이야기를 따라가며 각 장소가 품고 있는 개인적,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되짚어 보면 평화의 흔적이 우리 곁에 언제나 숨 쉬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11월의 테마 : 여행은 동기가 필요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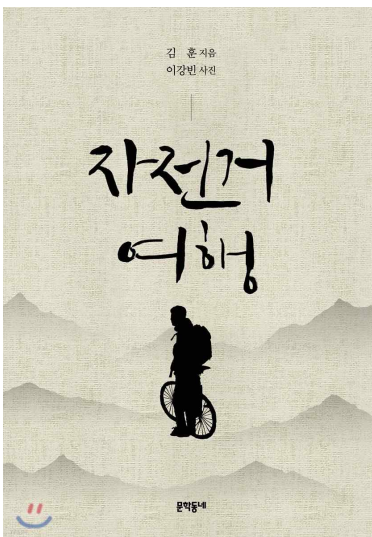
아주 사적인 궁궐 산책

막연히 지루할 것이라 생각했던 궁궐에도 아기자기하고 아름다운 표정들이 곳곳에 잔뜩 숨어있다는 걸,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었다는 작가의 안내를 따라 궁을 거닐어보자. 섬세하고 유쾌한 글에,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포착해내는 사진이 생생함을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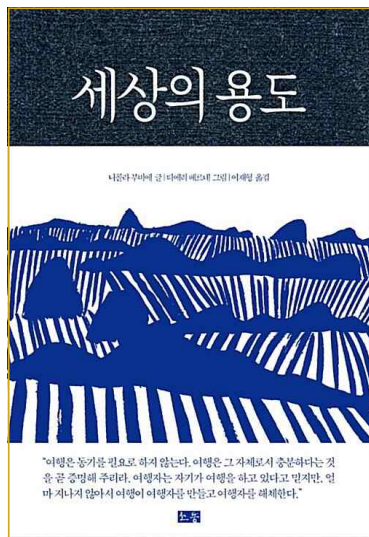
여행하는 인간

정신과의사인 작가가 전하는, 여행이 인생에 건네는 깊고 소중한 이야기이다. 새로움, 휴식, 자유 등 열두 개의 주제로 나누어 여행을 깊이 들여다보는 이 책은 스스로 삶의 속도를 조절하고 오롯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전거 여행

엄격히 길에 대해서, 풍경에 대해서만 말하는 글 속에는 어떤 이의 글보다 더욱 생생하게 삶의 모습이 녹아 있다. 문장 속에서, 길과 풍경과 우리네 삶의 모습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그것들은 만났다가 갈라서고 다시 엉기어 하나가 되었다가 또다시 저만의 것이 된다.



세상의 용도

유럽에서 아시아로 떠난 여행기이자 탁월한 산문집인 이 책은 강한 흡인력을 가진다. 마치 성경처럼 언제나 곁에 두고 수시로 펼쳐볼 수 있는 책이다. 같이 여행한 화가 친구 티에리 베르네의 그림은 두 청년이 경험한 새로운 세상과 삶의 용도, 그것의 굵기를 느끼게 한다.